

##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김 재 엽

(연세대학교)

조 춘 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정 윤 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을 '부모간 폭력 목격',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그리고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25.3%가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한 번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부모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의 두 유형의 가정폭력 경험은 부모폭력에 직접적,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부모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가정폭력 경험, 부모폭력, 인터넷 중독

\* 이 논문은 BK21-사회복지 「한국 사회위기와 신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 1. 서론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은 정확한 실태과악조차 되지 않는 가운데 최근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녀에 의해 행해지는 부모폭력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다른 가정폭력 형태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1998년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중 약 5%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1998). 외국의 경우 Ulman과 Straus(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자녀에 의한 아버지 폭력이 14.0%, 어머니 폭력이 20.2%로 나타났고, Agnew와 Huguley(1989)는 미국의 부모폭력에 대해 약 5%에서 20%정도로 추산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조사대상 자녀들이 축소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한 부모는 수치심과 절망감, 두려움 등으로 폭력사실을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폭력률은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부모폭력은 은폐된 가운데 피해 부모는 자녀의 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감수함으로써 폭력이 장기화되고 점점 더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하게 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해자인 자녀의 심리적·행동적 문제는 방치되어 폭력의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요인은 크게 가족요인과 개인의 행동특성이 있다(김영희, 1999). 그 중 폭력의 세대간 전이이론으로 설명되는 가정폭력의 경험은 청소년의 부모폭력을 야기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의 세대간 전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Cornell·Gelles, 1982). 부모폭력에 관한 몇몇 연구들에서도 부모간 폭력 목격이나 부모의 지나친 체벌,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김영희, 1999; 전희정·지영숙, 1999; DiLalla·Mitchell·Arthur·Pagliocca, 1988; Brezina, 1999; Geffner·Jaffe·Sudermann, 2000), 부모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정폭력 경험에 주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폭력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직접 학대를 당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떤 형태의 폭력 경험이든 자녀들의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단순히 목격한 가정폭력보다 부모로부터의 직접 학대 경험이 자녀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반면(홍성훈·김희수, 2005; 김형모·이숙진·서해정·최은정·김은정·문순희, 2007; 김재엽, 2007),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보다 부모간 폭력 목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almuss, 1984)도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부모간 폭력 목격

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청소년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피학대 경험이 클수록 그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연옥·박인아, 2000; O'Keefe, 1994).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가정폭력 경험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폭력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편 근래 들어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하여서 폭력적인 대중매체나 인터넷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쉬운 위험요인은 개인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심의 교우관계, 가정불화 등이 보고되었고(이희경, 2003; 남영옥·이상준, 2005; Young, 1998), 가족요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정폭력과 부모간의 공격적인 대화방식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현수·채규창·임연정·신윤미, 2004). 인터넷 중독과 부모폭력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들(김종범·한종철, 2001; 김신정, 2003; 이상주·배경희, 2004; 조성상·이서원, 2006; Young, 1998; Fatih·Gun, 2007)로 미루어볼 때 부모폭력과의 밀접한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폭력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부모폭력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부모폭력을 행한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을 유형별로 부모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사회복지적 개입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폭력 경험은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가정폭력 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과의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 선행연구

### 1) 부모폭력

부모폭력은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로써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가족 내 위계상의 권력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반해 부모폭력은 가족위계상의 권력이 적은 자가 더 많은 자에게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이 있다(Peek·Judith·Kidnell, 1985). 이런 점에서 성인자녀에 의한 노인학대와와는 구별되어 진다. 부모폭력의 개념은 “부모를 대상으로 힘을 얻거나 부모를 통제하기 위해 고의로 신체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손상을 입히는 자녀의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Cottrell, 2001). 이 행동들에는 흥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폭력, 감정적 조종, 언어폭력, 도둑질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부모폭력을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제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부모폭력의 실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은 약 5~16%로 보고되었고(김재엽·이서원, 1998; 김영희, 1999), 외국의 여러 연구들에서의 부모폭력 실태는 약 9~33%로 조사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Ulman·Straus, 2003; Paulson·Coomb·Landsverk, 1990; Agnew·Huguley, 1989; Cornell·Gelles, 1982). 폭력 유형별로는 Evans와 Warren-Sohlberg(1988)의 연구에서 신체적폭력 57%, 언어폭력 22%, 흥기사용 17%, 물건던지기 5%로 나타났고, 그 중 어머니폭력이 전체 폭력의 82%, 아버지폭력이 18%로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폭력률이 아버지에 대한 폭력률보다 높았고 폭력의 정도에서도 어머니가 더 심각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ttrell·Monk, 2004; Agnew·Huguley, 1989; Cornell·Gelles, 1982). 이에 대해 Cottrell과 Monk(2004)는 부모폭력에서 어머니가 주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버지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아들이 딸보다 부모폭력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Loeber·Hay, 1997; Agnew·Huguley, 1989), 딸의 부모폭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Cottrell, 2001). 한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폭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김재엽, 2007)는 결과도 있어 성별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부모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그동안 개인과 가족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 행동장애나 ADHD, 정신분열증, 양극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Cottrell, 2001; Evans·Warren-Sohlberg, 1988), 알코올 또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Pelletier·Coutu, 1992). 또한 친구관계 문제를 갖고 있거나 낮은 학업성적도 부모폭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희, 1999; Soong, 1997; Agnew·Huguley, 1989). 가족적 요인으로는 먼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간 폭력에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폭력적이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uffy·Momirov, 1997; Geffner·Jaffe·Sudermann, 2000). 그밖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나치게 방임적이거나 부모가 훈육에서 적절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할 때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기 쉽다(Omer, 2000; Cottrell, 2001). 가족구조적으로는 편모가족에서 어머니폭력이 가장 높았고, 이혼가족과 재혼가족에서 어머니폭력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구조와 어머니폭력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agani·Larocque·Vitaro·Tremblay, 2003).

## 2) 가정폭력 경험

가정폭력은 폭력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부폭력, 자녀폭력, 부모폭력, 형제간 폭력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부부폭력과 자녀폭력은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Dobash·Wilson·Daly, 1992).

부부폭력이 발생할 때 청소년이 이를 경험하는 정도는 광범위하다(Wyndham, 1998). 청소년 자녀는 부모상호간 폭력을 행사할 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으며, 청소년 자녀가 가정 내 다른 장소에서 부모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지 않고 나중에 부부폭력으로 인한 부모님의 상처나 부서진 물건 등을 봄으로써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김재엽·조학래·양혜원, 2003). 하지만 청소년들이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추정하는 폭력까지 부부폭력에 포함할 경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모사이에서의 폭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자녀를 ‘부모간 폭력 목격’ 집단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가정 내에서 청소년은 부부폭력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직접 부모로부터 자녀폭력을 경험한다. 자녀폭력 즉 아동학대의 개념은 Helfer와 Kemper(1972)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정의하였고, Gil(1971)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 등의 학대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자녀들을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개념정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정폭력은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간 폭력이 있는 부모들은 더 쉽게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는 자녀학대가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조미숙·이윤로, 1999; Straus·Smith, 1990; NCH, 1994). 따라서 부부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 자녀들을 ‘부모간 폭력 목격·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 3)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는 폭력의 세대간 전이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폭력의 세대간 전이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경험하였거나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할 경우 이후에 폭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Jaffe·Wolfe·Wilson, 1990). 이러한 폭력의 전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새로운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Cornell·Gelles, 1982). 청소년의 부모폭력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직접 학대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김영희(1999)는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과 부모에게 직접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족요인 가운데 부모간 폭력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부모로부터 구타를 많이 당할수록 부모에 대한 폭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구타 경험은 청소년 자녀의 부모폭력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김재엽

과 이서원(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부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보다 더 쉽게 부모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희정과 지영숙(1999)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폭력 연구에서 가정환경 변인 중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부모폭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의 경우 Liu(1997)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의 불화, 형제간의 불화 등 가정 내 갈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폭력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이나 부모의 공격적 행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모폭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nghinrichsen-Rohling · Neidig, 1995; Larzelere, 1986; Meredith · Abbott · Adams, 1986; DiLalla 외, 1988; Brezina, 1999; Geffner 외, 2000). 한편, Conell과 Gelles(198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한 것을 보고 자란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어머니를 구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Kratoski(1985)도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부모와 비슷한 방식으로 부모를 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서 폭력이 모델링을 통해 세대간 전이됨을 알 수 있다.

#### 4) 인터넷 중독

Goldberg(1995)는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중독이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마찬가지로 지각 장애, 주의력 장애, 사고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정신운동성 행동 장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장애 등 일탈적 행위를 유발한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의 병리적 도박 또는 약물남용 장애의 진단준거를 수정하여 '인터넷 중독증 공식 기준'을 제시하였다.

Goldberg가 '인터넷 중독증 공식기준'을 제시한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터넷 중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중독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다(Young, 1996). 둘째,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하나의 독립된 중독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컴퓨터 사용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이다(Suler, 1996a). 마지막으로 지나친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Suler, 1996b).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중독의 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다양한 중독행동을 보이면서 가정, 사회, 학업 등에서 방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장애 및 일탈적 행위로 나타난다(Young, 1998).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사회적 · 학업적 · 행동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학업소홀, 성적 저하 및 높은 결석률, 퇴학, 10대의 방황, 가족의 위기, 비밀, 거짓말과 관련이 있고(Young, 1998),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비행과도 관련이 있다(양돈규 · 조남근, 2001; Mann · Sutton, 1998).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일종의 중독으로 정의하고, 인터넷 중독을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로 간주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5) 가정폭력경험과 인터넷 중독 및 부모폭력의 관계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나 인터넷 중독과 부모폭력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은 거의 없으나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을 나타내며 공격성의 증가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조미숙, 2003; Peled · Edleson, 1995). 이상주와 배경희(2004, 재인용)에 의하면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공격적 충동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언급하였고,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서 공격성의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은희, 2003).

또한 인터넷 중독을 다른 중독개념과 일치한다고 보았을 때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Caetano, Field 그리고 Nelson(2003)은 연구에서 아동기 때 부모간 폭력에 노출이 되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Call(2001)은 아동학대를 당했던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 심각한 물질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Cohen 등(1982)의 연구에서도 보면 178명의 약물중독자들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약 84%정도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다른 유사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이 물질남용이나 약물중독에 쉽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Walsh, 2002; McGettigan-Savaresw, 2001; Schaefer · Sobieraj · Hollyfield, 1988).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은 인터넷 중독이 부모폭력을 유발한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조성상과 이서원(2006)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지배적이고 공격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의 폭력적인 게임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폭력이나 공격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식되어 폭력에 대한 정서적 둔감화를 가져올 수 있다(Jaffe · Wolfe · Wilson, 1990).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 위험이 높으며 공격성과 폭력행동을 증가시켜 부모폭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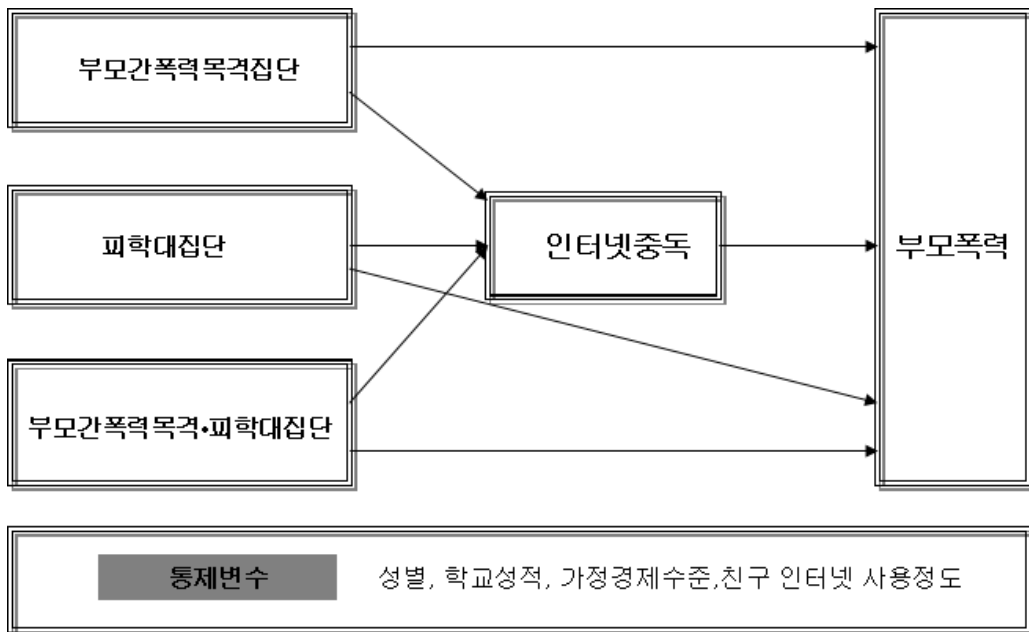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

녀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하여 서울지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 가능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고, 이후 선정된 학교 중 담임교사가 동의한 학급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회수 결과 여학생 조사대상자가 없는 고등학교 2학년의 설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응답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설문지 총 540개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의 경험을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집단', 그리고 '부모간 폭력 목격·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집단'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부모폭력을 종속변수로, 인터넷 중독을 매개변수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3) 측정도구

#### (1)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 경험인 부모간 폭력 목격, 피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가 제작한 갈등관리 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폭력’ 1문항, ‘경미한 신체폭력’ 3문항, ‘심각한 신체폭력’ 3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TS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없음”은 0점, “1년에 한두 번”은 1점, “한 달에 한두 번”은 2점, “1주일에 1회 이상”은 3점, “거의 매일”은 4점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피학대 경험을 폭력의 경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없음”을 0, 그 외에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1로 간주한 다음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 유무를 0과 1로, 피학대 경험 유무를 0과 2로 다시 나타내어 점수의 합이 0이면 둘 다 경험이 없는 집단이 되고, 1이면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 2이면 피학대집단, 3이면 둘 다 경험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둘 다 경험이 없는 집단을 제외하고 폭력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된 3개의 집단을 각각 폭력이 없음=0, 있음=1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간 폭력 목격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836$ 으로 나타났고, 피학대는 신뢰도 계수  $\alpha=.867$ 로 나타났다.

#### (2) 부모폭력

부모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가 제작한 갈등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폭력’ 1문항, ‘경미한 신체폭력’ 3문항, ‘심각한 신체폭력’ 3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조사시점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사 정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없음”은 0점, “1년에 한두 번”은 1점, “한 달에 한두 번”은 2점, “1주일에 1회 이상”은 3점, “거의 매일”은 4점이다. 전체 7문항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여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폭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폭력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841$ 로 나타났다.

#### (3)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6)의 인터넷 중독 검사 도구를 본 조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중독 측정 문항은 총 20 문항이고,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중독점수는 최하 20점에서 최고 100점의 범위를 갖는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집단별 구분은 Young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된다.

비 중독 집단(20~39점) : 평균적인 온라인 이용자이다. 온라인 이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잠재적 집단(40~69점) :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중독 집단(70~100점) : 인터넷 때문에 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신뢰도 계수  $\alpha=0.881$ 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폭력경험 실태, 인터넷중독 실태 및 부모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검증은 Kenny, Kashy 그리고 Bolger(1998)가 제시한 방법과 Aroian test를 사용하였다. Kenny 등의 매개효과검증 방법은 먼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때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해야 하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 영향력이 유의하다면 부분매개로 해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Aroian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선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남학생은 434명, 여학생은 102명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총 330명, 고등학생은 210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각각 61.1% 및 38.9%에 해당하였다. 가정생활수준을 분석한 결과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3명으로 2.4%였다. 비교적 어려운 편으로 응답한 학생은 41명으로 7.6%였다. 보통의 가정경제수준을 응답한 학생은 317명으로 58.7%에 해당하였으며 비교적 부유한편은 138명으로 25.6%, 매우 부유한편은 17명으로 3.0%에 해당하였다. 많은 수의 학생이 보통 이상의 가정경제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성적을 분석한 결과 학업성적 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63명으로 11.7%, 중·하는 105명으로 19.4%, 중간 정도의 학업성적을 보여주는 경우는 141명으로 26.1%, 마지막으로 중·상의 학업성적은 94명으로 17.4%에 해당하였다. 상위권으로 학업성적을 응답한 학생은 136명으로 25.1%에 해당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540

사회인구학적특성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자	434	80.4
	여자	102	18.9
학년	결측치	4	0.7
	중학생	330	61.1
	고등학생	210	38.9
가정생활수준	매우어려운편	13	2.4
	비교적어려운편	41	7.6
	보통	317	58.7
	비교적부유한편	138	25.6
	매우부유한편	17	3.0
	결측치	14	2.7
학업성적	하	63	11.7
	중·하	105	19.4
	중	141	26.1
	중·상	94	17.4
	상	136	25.1
	결측치	1	0.3

## 2) 가정폭력 경험 실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정폭력 경험실태를 살펴보았다. 가정폭력 경험실태를 부모간 폭력 목격 실태, 부모로부터 피학대 실태, 부모폭력실태 세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유형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간 폭력 목격 실태

가정폭력 경험 유형 중 부모간 폭력 목격 실태는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상호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부모 간 폭력 목격의 발생률은 37.6%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100명중 약 37명 정도가 부모 상호간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한 가지라도 목격한 것을 의미한다. 부모간 폭력 목격에 있어서 언어적 폭력 목격은 33.4%, 신체적 폭력 목격은 22.4%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부모간 폭력 목격 실태

변인(N)		사례수(N)	%
전체 부모간폭력목격(535)	있음	201	37.6
	없음	334	62.4
언어적 부모간폭력목격(539)	있음	180	33.4
	없음	359	66.6
신체적 부모간폭력목격(536)	있음	120	22.4
	없음	416	77.6

(2)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실태

다음으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실태를 살펴보았다. 피학대 실태는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전체 피학대 발생률은 52.3%로 나타났다. 언어적 피학대 발생률은 46.0%이었고, 신체적 피학대 발생률은 34.0%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부모로부터 언어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 내 자녀학대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실태

변인(N)		사례수(N)	%
전체 피학대(533)	있음	279	52.3
	없음	254	47.4
언어적 피학대(537)	있음	247	46.0
	없음	290	54.0
신체적 피학대(533)	있음	181	34.0
	없음	352	66.0

(3) 부모폭력 실태

가정 내에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부모폭력 실태를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으로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고,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전체 부모폭력발생률은 2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100명중 약 25명 정도가 부모에게 언어 또는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언어적 부모폭력 발생률은 22.9%, 신체적 부모폭력 발생률은 9.7%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약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적 폭력이 약 10%에 이르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부모폭력이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점 때문에 축

소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로 부모폭력의 발생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 부모폭력 실태

변인(N)		사례수(N)	%
전체 부모폭력(534)	있음	135	25.3
	없음	399	74.7
언어적 부모폭력(536)	있음	123	22.9
	없음	413	77.1
신체적 부모폭력(534)	있음	52	9.7
	없음	482	90.3

### 3)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평균은 53.03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잠재적 인터넷 중독군에 속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Young이 제시한 인터넷 중독 진단 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집단을 구분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인터넷 중독 잠재적 집단이 380명(71.7%), 비 중독 집단이 88명(16.6%), 인터넷 중독집단이 62명(11.7%)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0명 중 약 11명 정도가 인터넷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표 5> 인터넷 중독정도에 따른 집단구분 (N=530)

변인	사례수(N)	%
인터넷 비 중독집단	88	16.6
인터넷 중독 잠재적 집단	380	71.7
인터넷 중독집단	62	11.7

### 4) 가정폭력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주목적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및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경험을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 피학대집단, 그리고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부모간 폭력 목격집단은 부모간 폭력만 목격한 경험이 있을 뿐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하지 않은 집단을 의미하며 피학대집단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없으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집단인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집단은 두 폭력을 모두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가정폭력경험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따라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정폭력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가정폭력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식에는 성별, 학교성적, 가정경제수준, 친구인터넷사용정도가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경험 집단에 따른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을 종속변인으로 한 모형의 F값( $F=4.253$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p<.001$ ), 설명력은 4.5%였다. 가정폭력경험 집단들 중에서는 피학대집단( $p<.05$ )과 부모간폭력목적·피학대집단( $p<.001$ )이 인터넷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간폭력 목적집단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간 폭력 목적집단을 제외하고, 피학대만을 경험한 청소년집단과 부모간폭력목적·피학대를 모두 경험한 청소년집단에서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폭력을 목적만 한 경험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간 폭력 목적과 피학대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 인터넷중독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점을 볼 때 부모간 폭력 목적이 인터넷중독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t;표 6&gt; 가정폭력경험유형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Sig.
(상수)	45.487	4.519		.000
성 별 <sup>1)</sup>	.360	1.590	.010	.821
학교성적	-.772	.479	-.074	.108
가정경제수준	.033	.895	.002	.971
친구 인터넷 사용정도	1.818	.698	.120	.010**
부모간폭력목적집단	2.239	2.235	.048	.317
피학대집단	3.735	1.581	.117	.019*
부모간폭력목적·피학대집단	6.694	1.538	.218	.000***
R <sup>2</sup>		.059		
Adj. R <sup>2</sup>		.045		
Model F		4.253***		
VIF Range <sup>1)</sup>		1.072 - 1.278		

\* $p<.05$ , \*\* $p<.01$ , \*\*\* $p<.001$  주: 1) 남=1, 여=2

1)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값을 분석한 결과 VIF 계수가 10을 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김두섭·강남준, 2000). 본 연구에서 각 독립변인들간의 VIF 계수가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정폭력경험 집단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터넷중독을 투입하여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모형의 F값( $p < .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고, 설명력은 7.9%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인터넷 중독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은 부모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01$ ). 가정폭력경험 집단의 각각에 따른 부모폭력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피학대집단( $p < .01$ )과 부모간 폭력목격·피학대집단( $p < .001$ )이 부모폭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부모간 폭력목격 경험만을 한 집단의 경우 부모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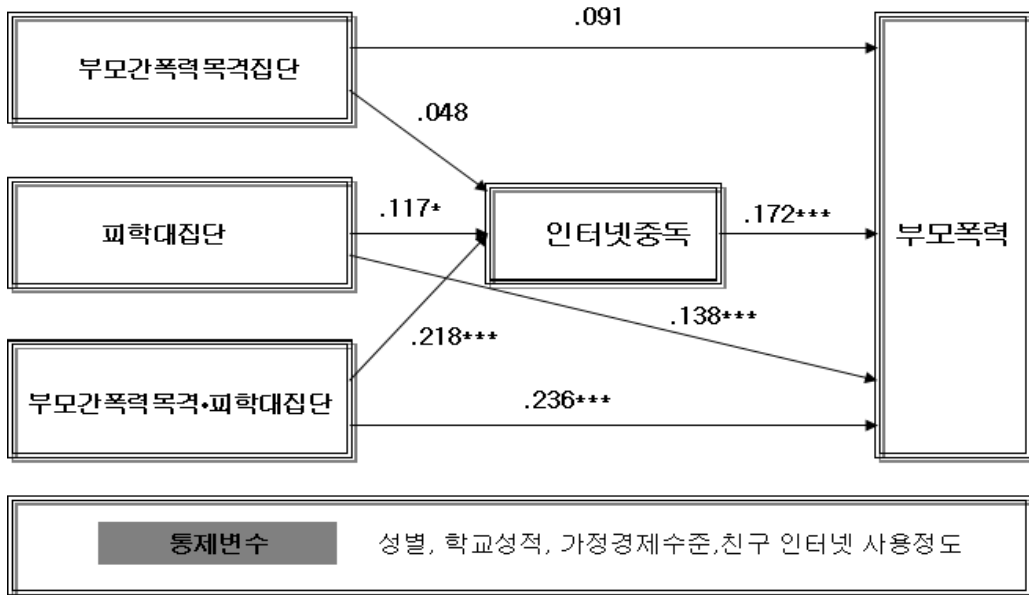
<표 7> 가정폭력경험유형과 부모폭력의 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변인	B	S.E	$\beta$	Sig.
(상수)	-.244	.103		.018*
성 별 <sup>1)</sup>	.052	.033	.072	.113
학교성적	-.002	.010	-.008	.852
가정경제수준	.014	.018	.034	.451
친구 인터넷 사용정도	.001	.014	.002	.967
부모간폭력목격집단	.089	.046	.091	.053
피학대집단	.152	.032	.138	.005**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집단	.152	.032	.236	.000***
인터넷 중독	.072	.019	.172	.000***
R <sup>2</sup>		.094		
Adj. R <sup>2</sup>		.079		
Model F		6.130***		
VIF Range		1.059 - 1.321		

\* $p < .05$ , \*\* $p < .01$ , \*\*\* $p < .001$  주: 1) 남=1, 여=2

**(3)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위의 두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경험의 각 집단이 인터넷 중독을 매개로 하여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정폭력경험유형과 부모폭력의 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sup>2)</sup>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학대경험과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 폭력에 대해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roian test를 실시하였다. Aroian검증(Mackinnon · Lockwood · Hoffman · West · Sheets, 2002)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 계산 방법이다. 계산식을 통해 도출된 값은 Z분포를 따르며 Z값은 분석하여 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 Aroian 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공식을 이용한 계산결과는 다음의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a(비표준화계수): 피학대집단 → 인터넷 중독, 부모간폭력목격·피학대집단 → 인터넷 중독

b(비표준화계수): 인터넷 중독 → 부모폭력

SE<sub>a</sub>: a의 표준오차

SE<sub>b</sub>: b의 표준오차

2) <그림 2>의 회귀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8>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p-value
피학대집단 → 인터넷 중독 → 부모폭력	2.079	0.037*
부모간폭력목격 · 피학대집단 → 인터넷 중독 → 부모폭력	3.171	0.002**

\* p<.05, \*\*p<.01

Aroian 검증결과,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피학대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 및 부모간 폭력목격 · 피학대경험과 부모폭력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학대 경험집단과 부모간 폭력목격 · 피학대집단은 모두 부모폭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의 매개 효과는 부분매개효과로 검증되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 집단 중 피학대집단과 부모간 폭력목격 · 피학대집단이 부모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폭력적 학습이 폭력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사회학습이론 및 전이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Geffner 외(2000)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가정폭력경험 중 피학대 경험없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기만 한 경우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아동기와 달리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폭력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고,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시작되므로 부모간의 갈등을 자신과 분리시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집에 있을 때에 폭력을 자제하거나, 자녀에게 폭력을 은폐하려는 경향 때문에 청소년 자녀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 집단 중 피학대집단과 부모간 폭력목격 · 피학대집단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가정환경요인이 중요하며 특히 부모와의 갈등 및 가족의 역기능적인 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의 환경이 역기능적일수록 또한 부모와의 갈등이 심각하고 폭력적인 경험을 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몰입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부모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 피학대집단과 부모간 폭력목격 · 피학대집단은 부모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학대집단과 부모간폭력목격 · 피학대집단의 경우 인터넷 중독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경험 집단 중 부모간폭력목격 집단의 경우 부모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의 매

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폭력경험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폭력과 가정폭력 목적 및 피학대 경험을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경험과 인터넷 중독 및 부모폭력을 단면적으로 연구하여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부모폭력 행동을 다각적으로 측정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가정폭력경험과 청소년의 부모폭력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종단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초기 징후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개입이 필요하다. 폭력행동은 욕설이나 심한 말과 같은 언어적 폭력에서 점차 신체적인 폭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으로 보아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수치심, 당혹감 등으로 은폐하려고 하여 효과적인 개입의 시기를 놓치기 쉽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9.7%이지만 언어적 폭력은 22.9%로 높게 나타났고, 이들이 신체적 폭력으로 진행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갖도록 하고 폭력 발생 초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폭력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폭력을 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피학대 경험이 있는 피해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심한 피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폭력의 위험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간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피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입의 시기는 빠를수록 효과적일 것이다. 자녀학대 부모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우자폭력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학대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부모-자녀간에 관계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부모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경험과 부모폭력을 매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점점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개입의 영역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잠재군에 속하는 비율이 71.7%로 나타나 이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교나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인터

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두섭·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사.
- 김신정. 2003. "인터넷 게임 중독 수준에 따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통제, 충동성의 차이 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옥·박인아. 2000. "가정폭력이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3-127.
- 김영희. 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0(2), 101-118.
- 김재엽. 2007.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 김재엽·이서원. 1998.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3): 1-14.
- 김재엽·조학래·양혜원. 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7-54.
- 김종범·한중철. 2001.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자존감, 공격성, 외로움,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7-219.
- 김현수·채규창·임연정·신윤미. 2004.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의 가정 내 변인 연구". 『신경정신의학』 43(6): 733-739.
- 김형모·이숙진·서해정·최은정·김은정·문순희. 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53-77.
- 남영옥·이상준.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195-222.
- 양돈규·조남근.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1-31.
- 이상주·배경희. 2004. "인터넷 과잉이용 학생과 보통이용 학생간의 자존감, 공격성, 우울 비교". 『청소년학연구』 11(3): 299-319.
- 이희경. 2003. "청소년의 게임 이용요인과 개인·사회적 요인이 게임 몰입과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355-380.
- 전희정·지영숙. 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37(6): 123-137.
- 정은희. 2003. "인터넷 채팅중독 청소년의 공격성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대인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미숙. 2003. "부부폭력목적 청소년의 공격행동에 대한 중재변인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2): 85-101.
- 조미숙·이윤로. 1999. "아동구타 가정과 아동의 적응연구 논점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3: 165-186.
- 조성상·이서원. 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 27(4): 117-131.
- 한경혜. 1998. "가정 내 세대간 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홍성훈·김희수. 2005. "아동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및 사회적응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5(1): 75-87.
- Agnew, R., and S. Huguley. 1989. "Adolescent violence towar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99-711.
- Brezina, T. 1999. "Teenage violence towards parents as an adaptation to family strain: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of male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30(4), 416-444.
- Caetano, R. C., A. Field and S. Nelson. 2003.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Physical Abuse, Exposure to Parental Violence, and Alcohol Problem in Adult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3): 240-257.
- Call, Christine R. 2001. *Substance Problem in Women with Histories of Child Abuse, Partner Violence, and Racism*. U of Illinois At Chicago.
- Cohen, Frederick S., J. Densen-Gerber and D. Judianne. 1982.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Drug Addiction in 178 Patients: Preliminary Results." *Child Abuse and Neglect* 6: 383-387.
- Cornell, C. P., and R. J. Gelles. 1982.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Urban an Social Change Review* 15(1): 8-14.
- Cottrell, B. 2001. *Parent Abuse: The Abuse of Parents by Their Teenage Children*. Ottawa: Health Canada.
- Cottrell, K., and P. Monk. 2004.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Th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5, 8-14.
- DiLalla, L. F., C. M. Mitchell., M. W. Arthur and P. M. Pagliocca. 1988. "Aggression and delinquency: Family and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3), 23-246.
- Dobash, R. P. M. Wilson and M. Daly. 1992. "The Myth of Sexual Symmetry in Marital Violence". *Social Problems* 39: 71-91.
- DSM-IV.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aorder*, 4th Ed, 317-391.
- Duffy, A., and J. Momirov. 1997. *Family Violence: A Canadian Introduction* (Toronto: James Lorimer and Company).
- Evans, Ellis D., and L. Warren-Sohlberg. 1988. "A pattern analysis of behavior toward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210-216.
- Fatih Bayraktar and Zubeyit Gun. 2007. "Incidence and Correlates of Internet Usage Among Adolescents in North Cyprus". *CyberPsychology & Behavior* 10(2): 191-197.
- Geffner, R. P. Jaffe and M. Sudermann. 2000.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Current Issues in Research, Intervention, Prevention and Policy Development*. New York, NY: Hayworth Press.
- Gil, D. C.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37-648.
- Goldberg, I. 1995. IASG(Internet Addiction Support Group)Official Criteria.
- Helfer, R. E., and C. H. Kempe. 1972.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Jaffe, P. G., D. A. Wolfe and S. K. Wilson.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Sage.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4: 11-19.
- Kenny, D. A., D. A. Kashy and N. Bolger.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4th ed. 233-265. Boston, MA: McGraw-Hill.
- Kratcoski, Peter C. 1985. "Youth violence directed toward significant others". *Journal of Adolescence* 8: 145-157.
- Langhinrichsen-Rohling, Jennifer., and Peter Neidig. 1995. "Violent backgrounds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youth: Risk factors for perpetr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7-36.
- Larzelere, Robert. 1986. "Moderate spanking: Model or deterrent of children's aggression in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27-36.
- Liu. 1997. "대만에서의 가정 내 청소년 폭력실태와 원인",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학술대회.
- Loeber R., and D. Hay.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MacKinnon, D. P., C. M. Lockwood, J. M. Hoffman, S. G. West., and V. Sheets.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Mann, D., and M. Sutton. 1998. "Net Crime: More change in the organization of thiev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8(2): 201-229.
- McGettigan-Savaresw, Mary. 2001. "The intersection of woman battering and child abuse." University of Pennsylvania, DSW.
- Meredith, W. H., Douglas A. Abbott, and Scot L. Adams. 1986. "Family violence: Its relation to marital and parental satisfaction and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299-305.
- NCH(National Children's Homes). 1994. *The Hidden Victims: Children and Domestic Violence*, London: NCH Action for Children.
- O'Keefe, M. 1994. "Linking marital violence, mother-child/father-child aggression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9: 63-78.
- Omer, H. 2000. "Parental Presence: Reclaiming a Leadership Role in Bringing Up Our Children. Phoenix, AZ: Zeig, Tucher and Co.
- Pagani, L., D. Larocque., F. Vitaro and R. E. Tremblay. 2003. "Verbal and physical abuse toward mothers: The role of family configuration, environment,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3): 215-222.
- Paulson, M. J., R. H. Coombs., and J. Landsverk. 1990. "Youth who physically assault their par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21-133.
- Peek, C. K., F. L. Judith. and J. S. Kidwell. 1985. "Teenage violence toward parents: A neglected dimension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051-1058.
- Peled, E., and J. L. Edleson. 1995. *Process and Outcome in Small Groups for Childrens of Battered*

- Women, pp. 121-144. in *Ending The Cycle of Violence: Community Responses to Children of Battered Women*. edited by E. Peled, P. G. Jaffe and J. L. Edleson. Newbury Park, CA: Sage.
- Pelletier, D., and S. Coutu. 1992. "Substance abuse and family violence in adolescents". *Canada's Mental Health* 40(2).
- Schaefer, Melodie R., S. Karen, and R. L. Hollyfield. 1988. "Prevalence of Childhood Physical Abuse in Adult Male Veteran Alcoholics." *Child Abuse & Neglect* 12: 141-149.
- Soong, W. T. 1997. Adolescent-to-parent violence in Taiwan.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75-88.
- Straus, M. A. and C. Smith. 1990. Family Patterns and child abuse. In R. Gelles, and M. A. Straus(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Suler, J. 1996a.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ausinterview.html>
- Suler, J. 1996b. "Internet Addiction."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cybaddict.html>
- Ulman, A. and M. A. Straus. 2003. "Violence by children against mother in relation to violence between parents and corporal punishment by parents." *Journal of Comparative Studie* 34(1): 41-60.
- Walsh, Carmella F. R. 2002. "Abused women in recovery: A qualitative study of women in substance abuse recovery who were abused, either physically or sexually as children." Morgan State University, EdD.
- Wyndham, A. 1998. "Children and Domestic Violence: The Need for Supervised Contact Services When Contact with the Violent Father Is Ordered/Desired." *Australian Social Work* 51(3): 41-48.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104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n Adolescents'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Internet Addiction

Kim, Jae Yop

(Yonsei University)

Cho, Choon Bum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Chung, Yun Kyung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f the adolescents and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For this research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by purposive sampling method as target sample. As a result, 25.3% among the sample answered that they had used verbal or physical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at least one time during the previous year. The group of abused by parents and the observing marital violence/abused by parents group were related to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significantly. On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as the mediator, the internet addiction variable revealed possessing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abused by parents group and the observing marital violence/abused by parents group. It can be concluded that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influenced adolescents' violence towards their parents directly and also indirectly through the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adolescent,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wards parents, internet addiction.

[논문 접수일 : 07. 12. 31, 게재 확정일 : 08. 03. 06]